

書 評

The Student's Companion To Geography

edited by Alisdair Rogers, Heather Viles and Andrew Goudie
Basil Blackwell Ltd., 1992, 386p.

처음 필자가 이 책을 만난 것은 1996년이였다. 홍콩대학의 교내서점에서 이 책을 대하게 되었을 때 목차와 내용을 대충 읽어본 후 주저 없이 사게 된 것은 지리학 개론서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책이고, 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대학원과정에서 교재로 사용한 후에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쯤 읽어 보기를 권하는 마음에서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책제목이 책의 내용과 책의 기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지리학을 배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지리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이상의 학교과정에서 지리학을 전공으로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교정에서 지리학을 막 공부하려고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왜 지리학을 공부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지리학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지리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지리학 분야의 중요한 인물인가?” “나는 무엇을 읽어야만 하는가?” “답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리학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인가?”에 대한 답을 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을 편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책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리학의 기본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으로 규정짓고 싶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모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46명의 지리

학자들이 쓴 52개의 주제를 6개로 대별하여 이 책을 구성하였다. 지리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46명의 저자들은 영국인과 미국인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호주인, 뉴질랜드인, 캐나다인 지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부분 중 첫째 부분은 지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는 내용으로 'Introductory Essays'라는 제목 하에 모두 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다섯 편의 논문은 첫째 응용자연지리학과 환경과학의 관점에서 현대지리학의 가치를 논하였으며, 둘째는, 인문지리학이 왜 가치가 있는 학문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인문지리학의 발달과 접근방법까지 논하였다. 세 번째는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지리학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및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직접 답사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리학자적 입장에서 세계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지리학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실용주의 학문으로서의 지리학과 그 실례를 소개하며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지리학사에 관한 내용으로 'What is Geography?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제목 하에 모두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리학사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지형학, 생물지리학과 생태학, 기후학, 수문학, 인간의 영향, 경관지리학, 제3세계, 경제지리학, 사회·문화지리학, 도시지리학, 정치지리학에 대한 일종

의 소개와 학사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일부는 최근 내용만을 다루기도 하였으나, 지리학에서 연구될 수 있는 분야를 총 망라하여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속한 12편의 논문을 읽으면 지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How to Study Geography?' 라는 주제 하에 지리학을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13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지리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지리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 개개인 연구를 위하여 어떤 연구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고하는 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 및 그 외의 연구방법, 리모트센싱, 지리정보체계까지 새로운 방법론,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토양분석 및 기타 분석내용, 자연지리학적 답사, 설문지 조사, 인터뷰 방법, 경관연구의 예, 고문서를 이용한 지리연구 등 연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네 번째는 'What's What and Who's Who in Geography?' 라는 주제로 지리학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4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지리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 지리학에서 주르 참고되는 자료들의 소개, 이제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출판물에 관해 소개하고 및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67명의 지리학자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A Geographical Directory' 라는 제목 하에 8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들을 소개하고 각 기관에서 출판하는 도서목록집을 소개하였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료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얻는 방법, 연구 및 답사여행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곳까지 소개하였다.

여섯 번째는 'What's Next?' 라는 주제로 수록된 10편의 논문을 통해 각국에서 지리학자가 일할 수 있는 분야와 각국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열거하였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주제에 대하여서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수학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이 책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이나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지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계속해서 지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리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학생들에게 지리학에 대한 학업지도를 해야 하는 지리학자들까지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 봐야 할 책으로 제안하고 싶다. 그 이유는,

- (1) 이 책을 통해 지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 책에는 지리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이 모두 열거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설문지 조사, 직접 인터뷰, 야외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 책이 어떠한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본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이 책이 대부분 영어권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지리학자들에 대한 소개와 지리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해당 분야의 주요 출판물까지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이 책이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이 책이 영어권 국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각국의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이 책이 대학원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외국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장학금이나 연구비 수혜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8) 이 책이 외국유학이나 외국여행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9) 이 책은 대학생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은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